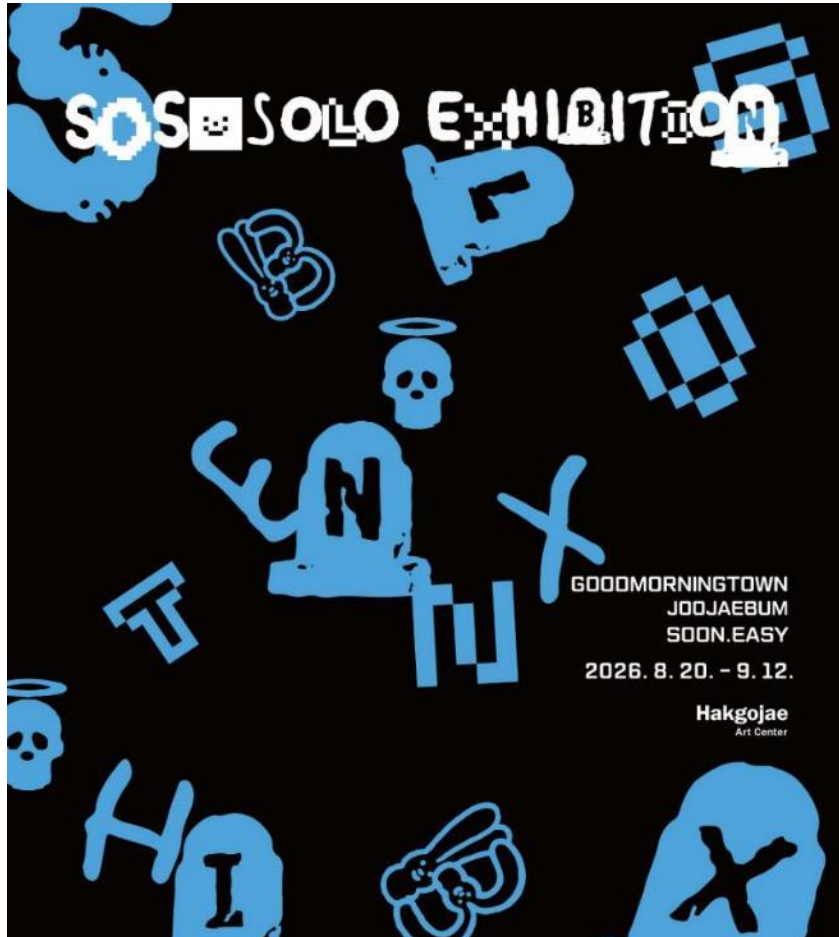


굿모닝타운·순이지·주재범 3인전

《개인전개인전개인전 SOSOSOLO EXHIBITION》



전시제목 : 굿모닝타운·순이지·주재범 《개인전개인전개인전》

전시기간 : 2026년 8월 20일(목) – 2026년 9월 12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신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48-4)

출 품 작 : 회화 및 설치 70여 점

○ 담 당 이주연 팀장 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60820-20260912_굿모닝타운·순이지·주재범_개인전개인전개인전

1. 전시개요

학교재는 2026년 8월 20일(목)부터 9월 12일(토)까지 굿모닝타운(1995-), 순이지(1990-), 주재범(1983-)의 3인전 《개인전개인전개인전》을 신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단체전의 형식을 빌리되, 세 작가가 각자의 작업 세계를 독립적으로 펼쳐 보이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전시 안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개인전이 공존하며, 관람객은 각기 다른 시선과 조형 언어를 오가며 작품을 경험하게 된다.

2. 전시주제

우리는 전시를 구분하는 관습에 익숙하다. 한 명의 작가가 공간을 채우면 '개인전', 여러 명이 참여하면 '단체전'이다. 단체전은 대개 서로 다른 작가의 접점을 발견하고, 각자의 작업을 하나의 주제나 서사로 엮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는 고정된 형식의 구분을 벗어나, 전시의 관계와 구조를 새롭게 모색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왜 함께여야 하는가.', '서로 다른 작업은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굿모닝타운, 순이지, 주재범의 작업을 하나의 주제 아래 귀속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세 개의 독립된 개인전이 나란히 존재하는 방식을 택한다. 서로를 설명하거나 하나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작업을 조율하지 않으며, 각자가 구축해 온 세계와 조형 언어를 그대로 드러낸다.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 두되 이를 성급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기획의 역할은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차이인 채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굿모닝타운은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틈에서 뜻밖의 충돌을 유발하며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낸다. 순이지는 유머와 불안, 익숙함과 낯섦이 한 화면 안에 공존하는 장면을 구축한다. 주재범은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픽셀로 돌아가 이미지가 형성되고 인식되는 과정을 역추적한다.

우리는 세 개의 개인전을 오가며 앞서 마주한 장면을 끊임없이 되짚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와 우연한 비교, 그리고 연상은 예기치 않은 해석으로 이어진다. 서로 다른 세계를 오가며 '본다'는 행위 속에서 관람자 스스로 관계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전개인전개인전》에서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은 개별성을 흐리는 일이 아니다. 세 작가는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어느 하나에 포섭되지 않은 채 각자의 방향을 유지한다. 이들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서로의 다름은 더욱 또렷해진다.

3. 작품소개



굿모닝타운은 이미지 사이에 발생하는 우연한 관계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화면을 가득 채운 작은 형상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기보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 나란히 놓인다. 이러한 구성은 대화 과정에서 느껴온 불안에서 출발한다.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상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감각은 명확한 서사로 수렴하지 않는 화면을 만들어낸다.



굿모닝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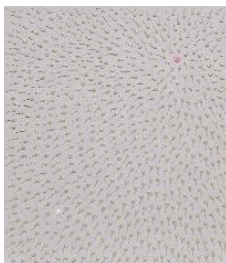
Untitled

2026

Acrylic on canvas

72.7x60.6cm (Detail)

<Chitchat>에서는 수다를 나누듯 서로 다른 이미지가 불규칙하게 이어지며,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드러낸다. <Garden>에서는 꽃과 풀, 괴물처럼 상반된 성격의 존재들이 한데 뒤섞인다. 무엇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삶의 양면성을 하나의 풍경 안에 공존시키는 것이다. <Untitled>는 특정한 의미나 이름을 부여하기보다, 관람자의 경험과 시선에 따라 각각의 요소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남겨둔다. 다양한 형상이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어느 하나가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회화는 합의나 결론을 요구하지 않는 '대화'에 가깝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전의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감을 덜어내고, 흰색을 중심으로 한 신작을 선보인다. 언뜻 배경에 묻혀 사라질 듯한 존재들은 두텁게 쌓인 물감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통해 오히려 또렷하게 부각된다. 색채가 아닌 표면의 높낮이가 윤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빛의 방향과 보는 위치에 따라 미세한 굴곡까지 포착되며, 평면의 회화는 부조에 가까운 물성을 획득한다.



특히 수많은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향해 나아가는 작품에서는 경쟁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제히 달려가는 광경을 통해 이를 은유한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지만 저마다의 위치와 방향은 다르다. 그 속에서 경쟁과 공존, 개인과 집단의 모습이 교차한다.

굿모닝타운은 이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생겨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주목한다.

굿모닝타운

Untitled

2026

Acrylic on canvas

72.7x60.6cm (Detail)



순이지

바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겨

2026

Watercolor on paper

29.7x21cm



순이지

슈가 캔디 마운틴 #14

2026

Watercolor on paper panel

116.8x72.7cm



순이지

AD HERE #12

2026

Spray, acrylic on wood

65.1x90.9cm

순이지는 유머와 불안, 익숙함과 낯섦이 공존하는 장면을 통해 삶의 이면에 자리한 부정성을 다룬다. 작업의 출발점인 <A4 드로잉>은 짧은 문장 안에 하나의 서사를 압축하는 형식으로, 만평의 간결한 구조와 통찰에서 영향을 받았다. 특정한 사건에 머무르기보다 불안과 좌절, 욕망과 모순처럼 쉽게 외면되는 감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다. 작가에게 부정성은 제거하거나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을 이루는 한 요소이다.

작은 종이 위의 그림들은 저마다 무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동일한 규격으로 연속해서 나열되면서 개별의 무게는 점차 희미해진다. 하나를 미처 기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정보가 밀려들고, 앞선 기억은 빠르게 사라진다. 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에 노출되며 이전의 것을 잊어가는 동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다. 무수히 스쳐 가는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억하는지 되묻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선의 범위를 '광고'로 넓힌다. 상품과 브랜드, 정치적 구호, 온라인 플랫폼과 각종 서비스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광고의 문법을 회화 안으로 끌어들인다. 거대한 문구와 전화번호, 익숙한 캐릭터와 상품, 옥외광고를 연상시키는 요소들은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한데 뒤섞인다. 끊임없이 시선을 붙잡고 욕망을 자극하는 장치들은 화면을 점유하며,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여 온 시각 언어를 낯설게 드러낸다.

<슈가 캔디 마운틴>은 꾸준히 이어온 연작으로, 보다 복잡한 사회의 모습을 펼쳐 보인다. 화면을 가득 채운 인물과 사건들은 서로 얽혀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이룬다. 이번 신작에서는 무대를 아트페어로 옮긴다. 작품을 감상하고 거래하는 사람, 사진을 찍는 관람객, 작품을 운반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이로 각종 광고와 상품, 상업적 표식이 뒤섞인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보이는 장면들은 한 장소에서 관계를 맺으며 소비와 욕망, 예술과 자본, 개인과 사회가 교차하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연작의 제목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가져왔다. 원작에서 '슈가 캔디 마운틴'은 동물들이 죽은 뒤 갈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는 낙원이다. 순이지는 이 이상향을 삶의 모순이 뒤얽힌 마을로 바꾸어 놓는 셈이다. 낙원을 뜻하는 이름을 상반된 풍경에 부여함으로써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주재범

어느 여름의 끝자락

2026

Acrylic Spray Paint on Resin, Wood

167.5x157.5cm (Detail)



주재범

0.7 - Balloon

2026

Cross-stitch on paper panel

30x30cm



주재범

누군가_02

2026

Oil on Solid Wood

12x42x150cm

주재범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pixel)'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삼는다. 멀리서 바라보면 수많은 점이 모여 하나의 선명한 형상을 이루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태는 잘게 분해된다.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적 경험은 관람자가 작품 앞을 오가며 보는 방식의 변화를 드러낸다.

이번 신작에서는 평면에 머물던 최소 단위가 화면 밖으로 빠져나와 독립적인 조각으로 등장한다. 각각은 하나의 오브제인 동시에 본래 작품의 표면을 이루던 일부, 즉 '피부'가 밖으로 뻗어 나온 것이기도 하다. 평면에 존재하던 요소는 크기와 부피, 질감을 지닌 실체로 전환된다. 또한 목재와 섬유 등 새로운 재료를 만나면서 물리적인 무게를 얻는다. 이를 통해 작가는 평면에서 출발한 조형 언어를 설치의 영역으로 넓혀간다.

재료에 대한 실험은 십자수로 옮긴 풍경에서도 이어진다. 작은 바늘땀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은, 미세한 점의 집합으로 전체를 구현하는 픽셀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멀리 있는 이미지를 확대할수록 픽셀의 단위가 드러나듯, 망원경으로 풍경을 당겨 보는 듯한 시각적 경험을 십자수의 바늘땀으로 구현한다. 디지털의 조형 원리가 손의 반복적인 행위와 섬유의 물성을 통해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시장 전체의 구성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공간을 3D 모델링 프로그램 '스케치업(SketchUp)'의 작업 환경처럼 바라본다. 프로그램에서 축척을 가늠하기 위해 배치되는 사람 역시 실제 크기로 제작되어 작품 사이에 자리한다. 그 사이를 거니는 관람객은 작품을 바라보는 외부의 존재에서 벗어나, 어느 순간 스케치업에 놓인 또 하나의 인물처럼 작가가 구성한 장면에 참여하게 된다.

4. 작가소개

굿모닝타운(1995-)은 회화를 하나의 '대화'로 이해한다. 그는 소통에 대한 불안과 갈망, 선과 악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세계의 복잡성, 그리고 끊임없이 유동하는 의미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화면 속 무작위로 충돌하는 이미지와 모순된 풍경들은,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의 흔적이다. 작가는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서로 다른 해석이 공존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만들어낸다.

《GMT PLAY》(2026, 워킹위드프렌즈, 서울), 《굿모닝》(2025, 학교재 아트센터, 서울), 《모리카랑 보일라》(2024, 워킹위드프렌즈, 서울), 《페이스 투 페이스》(2024, 소프트 코너, 서울), 《프린세스 다이어리》(2023, 갤러리 스탠, 서울)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개인전개인전개인전》(2026, 학교재, 서울), 《플레르 하나 꽃》(2025,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웨어 워스 워스》(2025, 워크스워크스, 서울), 《뮤추얼 프렌즈》(2022, 오프쳐, 서울) 등이 있다. 또한 웨이크 썬, 케이스티파이 등 다수의 브랜드와 협업했다.

순이지(1990-)는 삶의 부정적인 면모를 특유의 음울한 유머로 풀어낸다. 비극적 서사와 다채로운 색채의 대비를 통해 내용과 형식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삶의 비극성을 직시하고 수용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회화와 디지털 드로잉을 넘나들며, 때로는 조형물을 통해 작업의 형식적·매체적 범위를 확장한다.

《공짜점심》(2026, 워크스워크스, 서울), 《한국 농담 문화협회》(2024, 갤러리이알디, 서울), 《Sent from my iPhone》(2024, 노리치 갤러리, 런던, 영국), 《철거예정》(2023, 갤러리이알디, 부산), 《그럴싸한 개소리》(2021, IDAHO,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개인전개인전개인전》(2026, 학교재, 서울),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2025, 에브리아트, 서울), 《썬!》(2023,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클라우드》(2022, 갤러리이알디, 부산), 《기묘한 통의 만물상》(2021, 대림미술관, 서울) 등이 있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문화재단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나이키, 반스, 케이스티파이 등 다수의 브랜드와 협업했다.

주재범(1983-)은 픽셀을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를 넘어 하나의 시각 언어로 탐구한다. 픽셀은 멀리서 볼 때 명확한 이미지를 구성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형태가 분해되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작가는 회화, 설치, 공공미술, 브랜드 협업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픽셀을 현실 공간으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과 물질 세계의 경계를 탐색하며,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을 드러낸다.

《비욘드 더 스크린》(2025, 씨디에이, 서울), 《점에서 먼으로》(2024, 씨디에이, 서울), 《픽셀드 어드벤처 인 제팬》(2023, 소니 파크 미니, 도쿄, 일본), 《오프 투 픽셀 월드》(2022, 스탠 바이 미, 서울), 《픽셀 x 셀》(2019, 롯데백화점 본점 예비뉴얼, 서울)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개인전개인전개인전》(2026, 학교재, 서울), 《어 픽셀 프래그런스》(2025, 칼레이, 뉴욕, 미국), 《어몽 어스》(2024, 갤러리스탠, 로스앤젤레스, 미국), 《포토신시시스》(2023, 올 데이 플레이스 시부야, 도쿄, 일본), 《스크린스》(2022, GenG, 로스앤젤레스, 미국) 등이 있다. 또한 어도비, 넥슨, 나이키, 유니클로, 디올, 구글플레이, 스타벅스 등 다수의 브랜드와 협업했다.

5. 작가약력

1) 굿모닝타운

1995 서울 출생

개인전

- 2026 GMT PLAY, 워킹위드프렌드, 서울
- 2025 굿모닝, 학교재 아트센터, 서울
- 2024 보일라, 워킹위드프렌드, 서울
페이스 투 페이스, 소프트 코너, 서울
- 2023 프린세스 다이어리, 갤러리스탠, 서울

주요 단체전

- 2026 개인전개인전개인전, 학교재, 서울
- 2025 플레르 하나 꽃,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웨어 워크스 워크스, 워크스워크스, 서울
- 2022 뮤추얼 프렌즈, 오프쳐, 서울

주요 협업

쉐이크 쉼, 마이티 잭스,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티파이, SSG랜더스 등

2) 순이지

1990 인천 출생

학력

- 2016 홍익대학교 판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26 공짜점심, 워크스워크스, 서울
- 2024 한국 농담 문화협회, 갤러리이알디, 서울
Sent from my iPhone, 노리치 갤러리, 노리치, 영국
- 2023 철거 예정, 갤러리이알디, 부산
- 2021 그럴싸한 개소리, IDAHO, 서울

- 2018 지겨운 농담, DEN Night Flight Club, 서울
2016 LIFE IS A GIFT BUT NOT YOURS, 캄골컬쳐스페이스, 서울

주요 단체전

- 2026 개인전개인전개인전, 학고재, 서울
2025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 에브리아트, 서울
2024 후렴구 도둑, 에브리아트, 서울
2023 씯!,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스프링, 스프링, 이즐링턴 갤러리, 런던, 영국
2022 클라우드, 갤러리알디, 부산
이세카이 오 오라,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Vol 1. 8F Figure, Subtitled NYC, 뉴욕, 미국
2021 넘어지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바운더리, 관훈갤러리, 서울
기묘한 통의 만물상, 대림미술관, 서울

주요 협업

반스, 케이스티파이, 나이키, JTBC 등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경기문화재단, 수원

3) 주재범

1983 서울 출생

학력

2010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25 비욘드 더 스크린, 씨디에이, 서울
2024 점에서 먼으로, 씨디에이, 서울
2023 픽셀드 어드벤처 인 제팬, 소니 파크 미니, 도쿄, 일본
INFATUATION, 아트 갤러리 아더, 후쿠오카, 일본
2022 오프 투 픽셀 월드, 스탠 바이 비, 서울

- 이 방의 요리사, 갤러리아알디, 부산
2019 픽셀 x 셀, 롯데백화점 본점 예비뉴엘, 서울

주요 단체전

- 2026 개인전개인전개인전, 학교재, 서울
LOW RESOLUTION, 씨디에이, 서울
- 2025 어 픽셀 프래그런스, 칼레이, 뉴욕, 미국
Layered Scenes: Ordinary Variations, PBG 한남, 서울
콤플렉스, 유겐 갤러리, 도쿄, 일본
- 2024 어몽 어스, 갤러리스턴, 로스앤젤레스, 미국
하모니, 올 데이 플레이스 시부야, 도쿄, 일본
- 2023 Summer on the Island of Memories, 세종문화회관, 서울
포토신시시스, 올 데이 플레이스 시부야, 도쿄, 일본
콤플렉스 후쿠오카, 콤플레스 도쿄, 아트 갤러리 아더, 후쿠오카, 일본; 와다화랑, 도쿄, 일본
- 2022 CAFFEINE BUDDY, 하이프빈스, 서울
스크린스, GenG, 로스앤젤레스, 미국
THE LAST NIGHT, THE FIRST LIGHT, 킨키로봇 한남, 서울
- 2020 보존과학자의 C의 하루,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 2019 Unexpected Universe, 스트롤, 수원
8Bit Pixel-Art, 현대백화점 판교점, 성남
- 2014 Momotist, KT&G 상상마당, 서울
Inspiring the World, 반 고흐 미술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프로젝트

- 2025 블루 인헤일 / 블루 엑스헤일, OSG 공장 벽화 프로젝트, IBK 예술로, 대구
- 2022 날 5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및 외벽 설치, 상파울루, 브라질
Daydream, 리치애프렌즈 x 주재범, 스트롤, 수원
- 2021 나의 잃어버린 **을 찾아서, MMCA미술책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주요 협업

푸마, 나이키, 유니클로, 디올, 젠틀몬스터, 구글 플레이, 넥슨, 슈퍼셀, 스타벅스, 어도비, 그린피스, 현대
모터스튜디오, 위워크, 하이프비스트 등